

3. 번식과 변절 (6:1-8)

1)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6:1-4)

-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 2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 6:1/ '번성하기 시작할': *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심판의 이유인 도덕적 타락(5절)의 원인.
* 번식은 하나님의 강복의 실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질서에 대한 순종이 필요.
- 6:2/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
 - 1) 천사: * 고대 신화, 에녹1서 등을 근거
* 반론: 창세기 6장의 주제는 천사가 아닌 인류의 소산에 대한 것.
예수님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심(마 22:30)
 - 2) 인간 재판관이나 통치자: * 유대교의 이해, 왕들을 신의 아들로 신성시한 고대 근동의 개념을 근거
'자기가 좋아하는...'에서 일부다처제를 추구했던 가인의 후손 라멕의 흔적을 발견.
* 반론: 고대 근동에서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왕의 무리에 대한 증거가 없음.
 - 3) 셋의 후손: * 앞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대조. 셋의 계보는 8절 노아의 죽음으로 끝남.
셋 가족은 경건한 유산의 바깥에서 결혼했고 이는 도덕적 퇴보를 낳음.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견해.
'사람의 딸들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 셋의 후손이 종족 바깥에서 제한없이 결혼함으로써 인류의 타락을 가속화.
* '좋아하는', '보고', '삼는지라(취하다)': 하와의 범죄의 반향.
- 6:3/ '내 영': *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가리킴(1:2).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나고 더 이상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심.
* 피조물에 생명을 주는 권능의 원리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자신의 '영'을 거두심(2:7).
- 물을 되돌리고 생명이 다시 번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바람(루아흐)'에게 맡긴 일(8:1).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신의 권능을 주고 생명을 주는 영을 제거함.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적인 생명의 내재적 허약함이든 도덕적 결함이든,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
'120년': * 두 가지 견해 - 인류의 축소된 수명 / 홍수 이전의 은혜로운 기간
6:1-4의 주제가 '인간의 필멸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류의 축소된 수명'으로 보는 쪽이 더 타당.
모세에 의해 이상적인 성취로 제시된 후에 70년이 현실적인 규범으로 이해됨(시 90:10)
- 6:4/ '네피림': *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 민 13:33의 아낙 자손과의 관계 - 첩자들의 과장적 공포.
- 같은 집단이라면 이들이 홍수 후에도 살아남았다는 의미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단순히 종족 외 결혼으로 인한 홍수 이전 사회의 사악함을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이해해야 함.
'용사': * 전사 계급으로 폭력적인 업적으로 인한 악한 명성(셈)을 가진 자들.
* 이들과는 다른 노아에게 하나님은 만아들로 아들로 '셈'을 주심.

2) 온 세상의 사악함 (6:5-8)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6:5/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와의 대조. 번식의 강복을 죄의 결실로 수확.
'가득함', '모든', '항상': 당대의 타락상에 대한 강조. 이들에게는 가인과 같은 자비가 허락되지 않을 것을 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 악은 행동 이전의 인간의 본성과 성품에 속한 것.
* 홍수가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음.

- 6:6/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마음'의 근심하심.
 '한탄하사(인나헴)': * 구약에서 '후회'로 번역되는 단어.
 * 창조의 실수를 두고 후회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고통의 근원이 인간의 타락에 있음을 강조.
 *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며 죄인의 반역을 고통스러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증거.
- 6:7/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정책 - 1장의 창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하심.
 * 아담의 범죄로 땅을 저주하신 것과 같이 인간의 범죄로 생물이 고통 당할 것.
- 6:8/ '은혜': * 아브라함(18:3), 모세(출 33:12)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호의
 - 특히 노아와 모세의 유사성에 주목(출 33:14/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의로운 행동의 대가가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
 *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결과 (롬 4:13-16).
 * 노아의 경외함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의를 낳는 믿음(히 11:7).
 * 노아는 라멕이 기도했던 인류의 위로인 동시에, 인간의 죄로 인한 슬픔을 겪는 하나님의 위로.

4. 노아와 노아의 가족 (6:9-9:29)

1) 의로운 노아 (6:9-10)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 6:9/ '노아는 의인이요': 겔 14:14, 20; 사 54:9-10, 히 11:7; 뱀전 3:20, 뱀후 2:5-의를 전파하는 자.
 '당대에 완전한 자': 노아가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악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음을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처럼 셋의 육체적인 후손이면서 도덕적인 행실로도 의로운 계보에 속함.
- 6:10/ '세 아들 셈, 함, 야벳': 5:32에서 이어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될 것을 암시.

2) 타락한 세상 (6:11-12)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 6:11-12/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번식력이 아닌 부패와 폭력으로 채움.
 '하나님이 보신즉': 5절을 회상시킴. 사람의 죄가 땅을 오염시켰으며 다른 피조물도 더불어 고통을 받음.

3) 임박한 심판과 약속의 방주 (6:13-7:10)

(1) 홍수의 선포와 방주에 대한 가르침 (6:13-22)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고펀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6:13/ '노아에게 이르시되... 멸하리라': 룯 이야기와의 유사성-중보자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음.
- 6:14/ '방주(테바)': 출 1-2장 모세의 구원 기사와의 유사성-물에서 구원 받아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개시.
- 6:15/ '삼백 규빗, 오십 규빗, 삼십 규빗': 137m, 22.8m, 13.7m.
- 6:17/ '홍수': 출애굽 기사와의 연관성에 주목.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국지적인 홍수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난.
- 6:18/ '언약(브리트)': * 성경에 처음 등장.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창조 약속의 갱신도 포함(1:22, 26-28, 9:1, 7, 9-10)
* 합의가 아닌, 하나님이 개인과 그 후손들과 맺어 성격상 영구적인 약속의 헌장들.
노아 가족을 보호하고 새로운 세상을 영원히 보존할 의무를 지시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심.
그러나 노아, 아브라함,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김.
'너와 함께.. 세우리니':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써 노아가 맺은 언약은 노아의 가족과 생존한 피조물에게로 확장.
- 6:19-21/ '생물을 한 쌍씩.. 보존하게 하되': * 창조시에 '매우 좋았다'고 선포된 것을 보존하는 일.
* 인류의 악에도 불구하고 창조 시의 강복 약속을 수행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네게로 나아오리니': 아담이 동물을 데려와 이름을 지어준 일의 재현.
- 6:22/ '다 준행하였더라': * 노아의 순종이 노아 계보의 반복되는 특징 (7:5, 9, 16).
*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출 40:16)'.
* 노아의 순종은 후세대에 믿음과 순종의 효력의 모범(히 11:7).
동시에, 물을 통한 멸망은 하나님 편의 노아에 대한 신뢰이기도 함.
* 삼판의 날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벧전 3:6-7)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

2) 방주로 들어감 (7:1-10)

-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 7:1/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 노아 가족의 구원은 노아의 의로운 성품에 의한 혜택.
* 노아의 올바른 성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악한 세대를 책망하기 위한 것.
'그 세대는 죽어 마땅한 가치를 지녔다' - 칼빈.
- '... 내가 보았음이라':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 7:2-3/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모세 율법의 음식 관례에 해당하기 보다는, 희생 제물로서의 적합성과 관련 (8:20).
정결과 부정에 대한 구별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
'일곱씩': 일곱 쌍. 완전수 '7'-전체 창조 질서를 적절하게 대표함.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 지금까지 '씨'는 사람에게만 사용. (동물에게는 '종류').
*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 목적이 인류와 같이 동물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함.
- 7:4-5/ '7(8:10, 12)', '40(4, 12, 17; 8:6)'의 반복. '40'은 심판의 기간.
'땅에 비를 내려': '비를 내리다(마르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 노아가 지시 받을 것을 충실하게 완료할 때에 홍수 이후의 국면이 드러남.
- 7:6-7/ '육백 세라': 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시작되어 1년 11일 동안 지속.
'노아의 아들들과...': 6:18-20의 명령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
- 7:8-10/ '노아에게 나아와':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담에게 데려와 이름을 짓게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함.
'7일 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날로부터 7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7일(4절).

(4) 심판의 파도 (7:11-24)

1) 비가 시작됨 (7:11-16)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 7:11-12/ '그 달', '그 날': *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의미 - 아브라함의 할례, 유월절 출애굽, 모세의 죽음 등.
 *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닥친 심판(마24:37-39)
 '큰 깊음의 샘': * 창조 언어로 서술. 창조 때에 나뉘었던 물이 다시 모여 멸망의 목적을 이룸.
 * 선지자들이 선포한 심판의 날-창조의 역전 (사 24:18; 렘 4:23-26; 암 7:4).
 *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멸망의 수단(사 51:10),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광대함(시 36:5-6).
 '터지며(바카)':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 고라의 반역자들을 삼킨 지진을 서술하는데 사용된 단어.
 '창문': 주님이 임재하는 종말의 큰 날에 비유(사 24:18-20).
 '40주야': 7:24의 150일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10일 동안 감소한 것을 의미.
- 7:13-16/ 7:6-10의 반복과 보충: * 노아 일행의 충성과 순종을 강조.
 * 첫 창조의 언어를 다시 사용(종류대로, 암수로).
 '나아와': 자발적인 도착인 아닌 노아의 모집에 의한 결과(6:19 '이끌어 들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잠 18:10).

2) 홍수가 불어남(7:17-24)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 7:17-20/ '물(5회)', '증가했다(2회)', '차올랐다(3회)', '크게(3회)': 물이 한 없이 증가하는 지루한 두려움.
 '증가했다', '큰', '상승했다', '쓸어버렸다': 6:1-8의 언어 사용. 땅에 가득한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임을 강조.
 - 창조 때에 모이게 하신 물이 풀려남. 떠오른 것은 방주 뿐.
- 7:21-24/ '모든': 모든 피조 세계가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
 '땅 위의...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노아만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6:17을 상세하게 반복.
 '죽었더라': 인간의 죽음을 경고하는 에덴 장면과 죽음이 지배하는 셋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반영.
 '노아...만 남았더라': '남은 자'-거룩하게 구별되어 다시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반영.
 (렘 23:3; 사 4:3, 10:20-23; 롬 9:27-28)
 '육지(하라바)': 출 14:21-강한 동풍으로 인한 '마른 땅'을 가리킬 때 사용. '바람'(8:1)으로 평행 구절을 이룸.
 -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소규모의 생존자임을 암시.